

전국 문화해설사 활동의 초석을 닦은 고양의 자랑스러운 문화지킴이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재’ 하면 으레 딱딱하고 재미없거나 어렵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견을 없애고 문화재에 ‘스토리텔링’을 부여해, 보다 쉽고 재미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가 그 주인공이다.

글 박다연 사진 조병우



(좌측부터) 목복군, 박정례, 이기주, 정복여, 박인숙, 전필숙, 진정숙, 이혜련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모습

고양시 문화재와 함께해온 20년 세월

‘문화관광해설사’란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알고하고자 하는 ‘문화알림이’, ‘역사지킴이’, ‘관광도우미’로서, 경기도 문화유산 해설 양성과정의 엄정한 선정기준을 거쳐 선발된 자원봉사자들이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1기 출신 8명의 해설사는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고양시 문화재와 함께 숨 쉬며 다양한 관광객에게 고양시의 문화재들을 알리는 ‘전도사’ 역할을 도맡아왔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렇게 오래 활동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답사를 좋아했고 우리 문화재를 알아가는 것에 흥미를 느껴 도전한 일인데, 어느새 20년이 되었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30대에 첫 활동을 시작했으니, 고양시 문화재와 청춘을 함께한 거예요.”

목복군 씨의 말에 다른 해설사들 모두 크게 웃음을 터뜨린다.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는 시작부터 남달랐다. 그 개념조차 생소했던 시절, 문화관광해설사로서 활동의 초석을 닦으며 타 시의 모범사례가 될 정도로 체계를 갖추고 활발히 활동했다.

“처음에는 교육이나 활동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애를 많이 먹었어요. 직접 발로 뛰는 수밖에 없었죠. 자체적으로 답사도 다니고 공부도 하며 고양시 문화재에 대한 지식과 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갖춰나갔어요.”

남편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여태껏 지지치 않고 활동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이혜련 씨의 얼굴에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관광객에게 정보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에듀테이너’

문화관광해설사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제공뿐 아니라 관광객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에듀테이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해설기법을 벤치마킹해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수준 높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기계발에도 소홀할 수 없다.

“처음에는 문화재라는 것이 소품이나 나들이 장소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관광해설사의 현장 투입으로 문화재에 역사적 시각을 더하게 되면서, 관광객의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에 기여한 데에 대한 자부심도 크고요. 사실 저희를 20년간 지탱해준 원동력 역시 이러한 자부심이 아닐까 싶어요.”

이기주 씨의 말처럼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은 문화재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해설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왔다. 문화재 설명내용을 하도 반복해서 연습하다 보니, 나중에는 자녀들도 이를 따라 할 정도였다고 각고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해설사님 덕분에 문화재가 너무 재밌어졌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 밖에도 ‘감사하다’, ‘재미있다’라는 말들이 꾸준한 자기계발을 이끈 원천이 되어준 것 같아요.”

군건한 다짐과도 같은 진정숙 씨의 말에 모두 한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인다.

고양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전하는 사람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닌, 스스로 좋아서 하는 봉사이기 때문에 재미와 보람도 크게 느낀다는 이들. 이제 고양시 문화재는 이들 삶에 있어 떼려야 뗄 수 없는 일부분이 됐다.

“제 꿈은 2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해설사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왜 알아야 하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대의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재미있게 전달하고 싶어요. 체력이 허락하는 한 이 일을 계속해나갈 생각입니다.”

박인숙 씨의 당찬 각오처럼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앞으로도 시대와 함께 고양시의 자랑스러운 얼굴로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

고양시 문화관광해설사

문화관광해설은 인터넷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문 1일 전까지 예약 가능).

대상 초등학교~성인

문의

행주산성	031-938-0903
서오릉	02-353-6363
서삼릉	031-966-6776
밤가시초가	031-908-6776
가와지벌씨	031-968-3399

홈페이지 www.goyang.go.kr/visitgoyang